

# 이재명 “넓은 이분법 청산...中, 마땅치 않아도 협조가 외교”

### “노동자 갈라치기·진영 내분 획책은 구태” 저격 싱하이밍 초치에 “中 협력으로 어려움 풀어내야” “야당 노력 폼퐁, 국정 책임지는 여당 태도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제36주년 6·10 민주항쟁을 맞아 “넓은 이분법을 청산하는 게 6월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며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한국 정부를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을 두고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라며 “야당의 노력을 폼퐁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오만한 권력에 저항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빚지고 있다”며

“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켜려 한 것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누군가를 편 가르며 진실을 가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감시해야 한다”며 “내가 선(善)임을 입증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대편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거나 사법 이름을 빌려 진영 내분을 획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악한 구태”라며 윤석열 정부 정책을 겨냥했다.

아울러 “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며 “넓은 이분법을 청산하고, 오직 주권자의 요구에 기민하게 응하고 건설적 대안으로 잘하기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도 “자신들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이

유로 경찰봉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캄사이신 최루탄과 물대포를 준비하는 생각으로는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재차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외교부가 전날 한국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을 두고는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야당의 노력에 대해 이런저런 폼퐁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는지 묻는 질의에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미중 갈등에서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야당 대표로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은 중국과의 경제협력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대중 적자를 줄이고, 명동 일대가 중국



관광객으로 다시 들쭉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익과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인접 피해국인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공동 대응책을 강

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싱하이밍 대사와) 싸우려 간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으로 협조할 방향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나. 그게 바로 외교”라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 이재명, 정성호 육아 정책 비판에 “너무도 공감”

### “낳을수록 떡 하나 준다는 식은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하나 낳고 보니 키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다는 정성호님의 말씀에 너

무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미디언 정성호씨가 JTBC에 출연해 육아 정책에 대한 비판한 영상을 공유하며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주겠다는 식으로 저출생 극복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숙이 뺨뚫리는 듯 시원한 기분이 들다가 송구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다”며 “왜 이렇게 못하냐는 질타에 몸 둘 바 모르다가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치는 저를 발견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기가 생기면 회사 눈치 봐야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초등학교 근처에 유학업소가 있는데 아이 키울 마음이 생기겠다”며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정성호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 보육,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저출생 정책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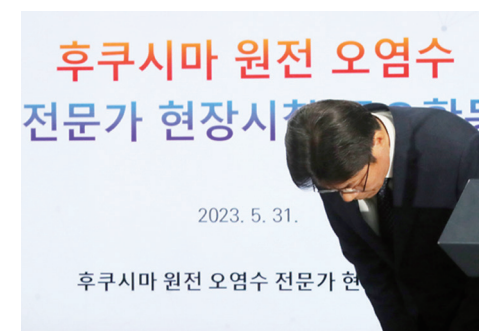
또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쳐야 할 탁상공론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달라”며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 희생 아닌 축복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엄마 아빠의 무거운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 민주 “도쿄전력, 2주간 오염수 방류 시운전”

### “尹 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반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와 관련해 “보름 뒤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고 방류만 남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쿄전력이 내일부터 2주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보냈던 시찰단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짐뚱하고 있다”며 “IAEA 평가 결과만 기다릴 것이면 시찰단은 왜 보냈나. 우리 자체적인 검증과 결론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는 “정부는 애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분이라도 이익을 제기할 뜻이 없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며 “야당이 앞장서서 국민 불안에 ‘괴담’으로 낙인찍으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도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밝혀라”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이냐, 반대냐”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